한 코끼리의 어둠탈출

(요1:4-8)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한 코끼리의 어둠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한 코끼리의 어둠탈출'
여러분 혹시 코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의 동물원에 아시아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코끼리의 이름이 코식입니다.
3살 때 용인동물원으로 와서, 지금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었죠? 몸무게가 5.5 톤이나 됩니다.
이 코식이에 대해서, 지난달 초 세계의 굴지의 방송국들이 방송을 하고 난리를 한번 피운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ABC 나 NBC 방송 그리고 영국에 BBC 방송, 이런 방송국들이 이렇게 보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김종협 씨라고 사육사가 있는데, 20년을 그러니까 3살 때 에버랜드로 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코끼리를 맡아서 사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끼리가 이 사육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합니다.
외마디 말이지마는 일곱 개의 단어를 따라서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아, 안돼, 누워, 아직, 발, 앉아, 예.
간단한 단어이지만 일곱 개의 단어를 코끼리가 따라서 하는데, 그거 봤더니 이 코끼리가 입술이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가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모아지지 않으니까 소리 날 리가 없지요.
사람 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모으고 입 모양을 어떻게 만드나 하면, 자기 코를 입 속에 집어넣고 모양을 만들어서, 어!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 , 좋아~
그 사육사가 좋아~ 그러면 자기도 좋아~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식이의 소식을 전해 듣고, 2010년에 이게 밝혀진 모양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남녀 이 관련 학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분야냐 하면 생물물리학자와 코끼리 의사소통 전문가.
남녀 두 박사님께서 2년 동안 연구 하셔서, 11월 초에 Current biology 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를 하셨어요.
형태학적으로 이 언어 모방이라는 게 불가능한데(포유류에게), 이 언어능력이 불가능한 포유류인 코끼리가 사육사의 말을 일곱 마디이지만 어떻게 따라서 할 수 있을까를 연구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코끼리는 원래 10마리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코식이가 3살 때 무리를 떠나서 오자마자 이 사육사하고 둘이서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모여 살 때 다른 코끼리에 대해서 느끼는 친족의식, 가족의식을 사육사에 대해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이 사육사와 같이 있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려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아 코끼리가 194개의 울음소리를 내는데, 코식이가 좋아할 때 그 음성의 주파수를 보면 완전히 음역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코식이가 좋아할 때의 이 주파수가 사육사가 좋아할 때의 주파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아~! 참 특이하지요?

만약에 10마리 이상의 코끼리들끼리 같이 모여 살았다 그러면, 194개의 울음소리를 낼 때의 그 주파수대로 소리를 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육사와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육사와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육사의 주파수를 찾아 낸 거예요.
사육사가 말할 때의 주파수를 찾아내서 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좋아~, 안돼~, 아직~, 앉아~, 예~, 이런 말들을 따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신기해요 참~
이 코식이의 이야기가 깊은 영적 의미를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비유가 됩니다.
비유적 소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빛을 증언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둠 속에서 빛을 증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인가? 또 어둠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뒷골목 또는 사창가나 유흥가 등을 전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 어둠의 자식들.
막연한 상징성으로 우리가 어둠이라는 단어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코식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사육사가 '좋아!' 할 때 코식이가 코를 입에 넣고 '좋아!'를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할 때, 우리가 그 '좋아!'를 마음으로 좋게 느끼면서 '좋아'라고 따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앉아',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같이 '안 된다'고 느끼면서, '아직'이라고 느끼면서, '그래'라고 느끼면서 그 말을 따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할 때는 나는 싫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싫어서 '싫어' 하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전혀 다른 주파수대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싫다 그러는데 나는 좋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직 '안 돼'라고 그러는데, 나는 빨리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그 의미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의 참 뜻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할 때 마음으로 '좋아'를 느끼며 '좋아'라고 말할 수 없는 한,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 할 때 내 마음으로 안 된다고 느끼고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한,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느끼면서 '아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내 삶은 완전히 혼돈 속에 사로잡힙니다.

혼돈 속에 사로잡힌 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특징이 혼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를 아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할 수 없으니까 혼돈이 오는데, 이 혼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전화소리가 들립니다. 핸드폰 소리가.
그래 일어보니 새벽이에요, 깜빡 자기 전에 식구들이 다 놔두고 들어가 잠을 자고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전화소리가 나니까 급하게 달려가다가 '꽝~' 하고 잠결에 '꽝~' 하고 부딪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려서 벽에 붙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닫혀서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문이 어중간하게 딱 한 45도 각도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서 그걸 못보고 달려가다가, 문 모서리에 달려가는 속도로 이마가 '꽝" 부딪친 겁니다.
큰일 날 뻔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어둠에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싫어하고 있는데 나는 좋아하고 달려가다 부딪치고,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하다가 부딪치고, 하나님은 '아직 안 돼' 하는데 나는 '지금 돼야 돼' 하고 가다 부딪치고…
그게 실패이고, 그게 낙담이고, 그게 좌절이고, 그게 불안이고, 그게 걱정이고 근심거리로 우리 삶에 다가 온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챙길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성공리에 마치겠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밝음 안에 있게 됩니다, 명랑 안에 있게 됩니다, 유쾌함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둠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생각 대신에 어둠을 벗어날 생각, 건강을 챙길 생각 대신에 어둠을 벗어날 생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일을 잘 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 대신에 내가 어둠을 먼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둠을 벗어납니까?
하나님이 '좋아' 할 때, 나도 마음으로 좋다는 걸 느끼고 '좋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할 때, 사육사가 안돼 그럴 때 '안 돼' 하는 코식이처럼, 나도 안 된다고 느끼고 '안 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코식이가 일곱 마디를 따라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굴지의 방송들이 다~ 그 코식이의 소식을 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형태학상 포유류가 언어모방 능력이 없는데 사육사의 말을 똑같이 따라 하니까 굉장한 일이지요.
아~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코식이가 사육사의 말을 따라 '좋아'라고 하는 한마디를 따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 할 때 그 '좋아'를 따라 하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단 일곱 마디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식이는 포유류로서 언어모방 능력이 없는데도 일곱 마디를 따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 마디를 따라 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게, 혼돈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한 마디를 따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좋아'라고 하시는 말을 따라 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좋음을 표현하고 살고, 하나님이 '안 돼'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을 마음으로 느끼고 따라 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좋아, 싫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뜻을 겉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코끼리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으려면 예수를 받아 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근데 안 받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왜 우리가 따라 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걸까요?
코식이 얘기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10마리 이상의 코끼리 떼가 모여 사는 그 본성대로 코끼리와 함께 모여 있었다면 코식이는 사육사의 말을 결코 따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식이가 사육사의 말을 따라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육사와 둘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이서만!
그래서 사육사에 대해서 유대감을 느끼고, 사육사만이 코식이에게는 가족이고 친척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감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동물이라도.

동물도 무서우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육사가 좋다는 말을 할 때에 분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지요.
강아지도 우리를 보면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무서워 도망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아'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사육사와 둘이 살았기 때문에.
코끼리들끼리 모여 있었다면 코끼리들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코끼리들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코끼리와의 유대감을 위해서 코끼리들의 울음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서 194개의 울음소리를 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94개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살지언정, 단 일곱 마디의 사육사의 말은 따라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10마리 이상의 코끼리를 코식이가 떠나왔던 것처럼, 내게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대상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말처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께 유대감을 갖고 살 수 있는 다른 코끼리들의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꼭 가족들만 하고 친구들만 하고 회사 직원들만 나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보면 세상이 나한테 말을 합니다.
'아 경제가 어렵겠구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내 마음이.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뉴스에서 뭐라 그러는 것은 뉴스에서 하는 말이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한, 다 거짓이고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참 말인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 그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게 뭐가 되느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배설물처럼 더러운 오물이 되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게 돈이 말합니다, '내가 최고거든? 나를 가지면 힘이 생기고, 나를 가지면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거든?' 다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다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하고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하고만 있게 될 때라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 하실 때의 마음상태로 내가 느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밝음의 세상입니다.
이 밝음의 세상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 밝음의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관리해서 오래 살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업적을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이런 거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밝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의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느낄 수 있어서, 나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라 이겁니다.

아~! 코식이 이야기, 결정적인 얘기에요, 결정적인 얘기에요.
사육사의 말을 따라, 자기 코를 입 속에 넣고 '좋~아'
아아, 신기해요.
코식이가 '좋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좋아'라는 말을 제일 잘 하고.
일곱 마디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좋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황에 맞게 마음으로 느끼고

‘좋아’라는 말만 따라 할 수 있어도,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생긴 죄악의 체질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밝음의 세상 빛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빛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다 하는 것을 너희는 싫다 하고 도망가다 꽝 부딪쳐 자빠지고, 하나님은 싫다 하는 것을 너희는 좋다 하고 달려 들어가다가 꽝 부딪쳐 자빠지고, 하나님은 안 돼 하는 것을 너희는 돼 하다가 손에 정말 가시가 찔리고…
그렇게 살면서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과 염려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과 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좋아’ 할 때 ‘좋아’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이요 행복이요 기쁨의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그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식이한테 져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좋아’라는 말 한마디라도, ‘안 돼’라는 말 한마디라도, ‘아직’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아직 안 돼’라고 말할 때, ‘아직 안 돼’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좋다 여기고,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을 싫다 여기고…
요 세 마디만이라도 코식이처럼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증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내 마음에 말하고 소리를 내는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과 사물과 사건을 떠나, 하나님과만 독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코식이처럼 따라함으로써, 어둠을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